



항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⑨

내가 죽으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참청기연(參請機緣)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님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니라. 또한 신수 선사는 항봉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 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법은 한 종(宗)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이뤄지게 됐느냐, 어떤 것을 점(漸)과 돈(頓)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이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니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漸)이요 견해가 빠르면 바로 돈(頓)이니라.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과 '돈'이라 이르는 것이니라.

신수 스님이 지성 스님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산으로 가서 해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들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아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해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해능 스님의 견해와 나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지성은 즉시 조계산으로 가 해능 대사의 법문을 듣고 그 말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결합

서 말했다. "법달이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나니, 7권 모두 비유와 인연 말씀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승(三乘)을 말씀하심은 다만 세상 사람들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며,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승(乘)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승(佛乘) 뿐이라'고 하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해 사된 견해를 떠나니 이것이 바로 일대사(一大事)이니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바로 양변(兩邊)을 떠나니라.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空)에 집착하니, 모양에서 상(相)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미혹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법달이여,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끌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끌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끌고 마음이 사되면 <법화경>에 끌리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끌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끌리게 되나니라."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화라고 했으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대사님

참청기연(參請機緣)은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남문북점(南門北漸)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신수 스님이 지성 스님을 조계산으로 보내 해능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자신에게 그 법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법달이라는 사람이 육조 스님과 <법화경>의 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가 <법화경> '방편품'의 최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화라는 사람과 육조 스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육조단경>에서 선문답의 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가정경>에서 아라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라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사소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지만, 부처님은 아라한의 대답을 제일로 쳤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도 깨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 또한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중국 신화에는 선지식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참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참사람을 어떻게 구분 할까요? 사람은 눈·귀·코·입·몸·뜻에 이끌려 사는 것이라면, 참사람은 색·소리·냄새·맛·촉각·분별에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해능 선사는 사람과 참사람의 차이를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사람과 <법화경>을 굴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참사람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참사람은 무위진인(無爲眞人)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위진인은 말 그대로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흠뻑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제 선사는 <임제록>에서 참사람을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며,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능 스님은 조계산의 보림사에서 법을 펴고 있었습니 다. 육조 해능이 머무는 보림사는 남중국에 있었고, 신수 스님의 옥천사는 북중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 다. 사람들은 남능북수(南能北秀)라고 불렀습니다. 해능 스님은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펴고 있다고 해서 돈종(頓宗)이라 하고, 신수 스님은 점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점종(漸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분별심을 일으켜 남문북점(南門北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진리)에는 돈,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돈과 점이 나눠질 뿐입니다.

해능 선사는 사람과 참사람을 점(漸)과 돈(頓)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진리에는 점(漸)이 없으나 사람에게서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과 돈이라 이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 스님의 계(戒)·정(定)·혜(慧)에 대한 물음에도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自性)의 계요,



그림 · 김필현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혜이다'라며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그 자리가 곧 계·정·혜가 완성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법달과 <법화경> 공부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화경>에 담긴 뜻을 마음으로 녹여 <법화경>과 하나 됨을 강조하며, <법화경>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법화경>을 자유로이 굴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승(三乘)에는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이 있습니다.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교법이며, 연각승은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가르침으로서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관하고 또는 다른 인연에 의해 깨달은 가르침입니다. 보살승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보리심을 발해 불도에 입하고 사홍서원을 발해 육도만행(六度萬行)을 수하여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증오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의 삼승(三乘)에서도 해능 스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나눠 설명할 뿐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서 최상승인 불승(佛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에서 만날 수 있는 슬한 부처님의 각기 다른 이름이 진리를 여려 가지 모양으로 나타냈, 여럿이 곧 하나이며 문수

와 보현이 둘이 아닌 하나요, 관음과 지장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길과 하이드가 둘이 아닌 하나이듯, 마음을 떠나 부처가 따로 없으며 생활을 떠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처휘진적(處輝眞寂) 스님이 깨달음을 이뤄 첫 설법을 하기 위해 법상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한 동자승이 일어나 당돌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을 때는 황금빛 연꽃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스님의 첫 설법은 무슨 상서로운 조짐이라도 있었는지요?"

스님은 법상 위에서 빙그레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문 밖의 눈을 흘었네."

어느 날 제가 머무는 사자암에 신도들이 물려와 "고승이 죽으면 상서로운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먼 훗날 스님이 죽으면 어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도들의 기대에 당연히 상서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94@buddhapia.com

선지식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

했다. "대사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했으나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의 마음에 결합했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써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했다.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는 계·정·혜는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말해 주기를 바라노라."

"신수 대사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제라하고, 선을 발하여 행하는 것을 해라하고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이라고 합니다. 신수 대사의 말씀은 그러 하온데, 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自性)의 계(戒)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定)이며,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혜(慧)이니라. 계·정·혜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관하는 것이요, 나의 계·정·혜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관하는 것이니,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계·정·혜도 세우지 않느니라."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했다. 7년간 <법화경>을 외웠으나 마음이 미혹해 바른 법의 당처(當處)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께서는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화를 세 차례 때리고 나서 신화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나 아프지 않느냐?" 신화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했다.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면, 어떤 것이냐?"

신화가 대답했다. "반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한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바로 범부와 같아서 이내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신화여, 앞에서 분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兩邊)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음은 생멸(生滅)이니라.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남을 회통하려 하는가?"

"그대 마음이 미혹해 자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으시니,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성을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야. 그대가 스스로 미혹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해능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라 그대의 미혹함을 대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그대가 스스로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 과정 ◆

- 실기교육 : 흥은사 주지 성각스님
-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범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 모 집 : 수시모집
-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 수강시간 : 오후 3시
- ◎ 범음대학 : 흥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초보자도 어렵게 불공과 제의식 기능하도록 교육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흥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 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중(중풍) / 뇌성마비 / 척추마비 / 무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터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 의학박사 임갑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생장정체교정체육학회 사법자격을소유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한국, N 카이로프락틱협회 경명교문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종무법인 禪農教團
(법인등록 제 3750호)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禪農 一道
開心 正覺

- ◆ 입 종 비 : 없음
-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적리 611번지
- 사무국장 :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 과정 ◆

- 실기교육 : 흥은사 주지 성각스님
-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범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모 집 : 수시모집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흥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초보자도 어렵게 불공과 제의식 기능하도록 교육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흥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 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중(중풍) / 뇌성마비 / 척추마비 / 무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터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의학박사 임갑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생장정체교정체육학회 사법자격을소유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한국, N 카이로프락틱협회 경명교문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